

## 그리스도의 교회

- 김사무엘 선교사 / 2002.9.06 -

안녕하십니까? 김 사무엘 선교사입니다. 지난주 저는 개척된 지 2년이 조금 넘는 일본의 한 교회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일본인 전도를 위하여, 도시 중심부에 교회장소를 마련하여 활동한지 2년 만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일본어로, 일본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개척된 교회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하여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장과 피로함과 염려가운데 목회 현장에서 애쓰며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사님을 보면서 절로 그를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개척된 현장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했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기이한 현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이 지상에 사탄의 지배와 세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기에 이와 같은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 그 소리와 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와 불이 가져온 내용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살리는 근본이 되며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탄생의 현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듣는 자들의 귀를 열었고 기도예 열중하고 있는 120문도들의 눈을 뜨게 했을 것이며 그들 앞에 기이한 현상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로 가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살아 계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희생이, 그의 말씀이 보고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았고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의 감동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예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의 하시는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교회입니다.

2천년의 요란함과 표적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 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여실 때 마귀의 세력을 깨시고자 쓰신 한번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이 지구촌에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 졌으며 그 마음에 살아 계신 예수로 가득하여 말과 행동이 그 주인 닮아 가는 가득한 사람들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